



이선아 요코하마 댄스컬렉션 대상 수상

입력 2007.01.24. 오후 5:28



요코하마 댄스컬렉션 대상 이선아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 재학 중인 이선아(28.예술전문사 2년)씨가 '2007 요코하마 댄스컬렉션'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씨는 18-2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대회에서 작품 '퍼포밍 드림(Performing Dream)'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공연 전날 밤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무용수가 꿈 속에서 멋진 공연을 하다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렸다.

올해 대회에는 125명의 신청자 가운데 14명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김씨는 이번 수상으로 영국과 네덜란드, 모나코, 스페인 무대에서 작품을 발표하고 프랑스 국립안무센터에서 6개월 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일본 요코하마시와 주일 프랑스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요코하마 댄스컬렉션'은 젊은 안무가 발굴과 육성을 목표로 1996년 창설된 국제 창작무용 대회다. 작년에는 현대무용가 김명신씨가 '89도(89 Degree)'를 공연해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nanna@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529489>
